



GIST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	GIST 홈페이지 게시	
보도자료 담당	대외협력팀 김미연 팀장	062-715-2020 / 010-5302-3620
	대외협력팀 이나영 행정원	062-715-2024 / 010-2008-2809
자료 문의	학사지원팀 김지훈 담당	062-715-3603

GIST 학부생, 「삼성 AI 챌린지 2018」 입상

- GIST대학 신소재공학전공 3학년 김소륜 학생, NIMS Campfire' 팀 소속으로 참가해 데이터 챌린지 3위 입상

- GIST(지스트, 총장 문승현) 학사과정인 GIST대학의 신소재공학전공 3학년 김소륜 학생이 「삼성 AI 챌린지 2018」에 참가해 데이터 챌린지 부문 3위에 올랐다.
 - 「삼성 AI 챌린지 2018」은 인공지능(AI) 분야의 아이디어와 인재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선행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가 주최하는 대회로 ‘AI 해커톤’(Hackathon)과 ‘데이터 챌린지’(Data Challenge) 부문으로 구성됐으며, 참가팀은 예선을 거쳐 지난 9월 8일(토) 삼성전자 서울R&D캠퍼스에서 본선을 치렀다.
- 김소륜 학생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(NIMS) 학부 인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 김정우 학생과 함께 NIMS 수학원리응용센터 백진언 연구원을 팀장으로 하는 ‘NIMS Campfire’ 팀을 구성해 이 대회에 참가했다.
 - 데이터 챌린지 부문에서는 주어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상된 교통사고 데이터 복원 모델을 만들어 미래의 교통사고를 예측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으며, NIMS Campfire 팀은 그래디언트 트리 부스팅(Gradient Tree Boosting)* 알고리즘을 이용한 교통사고 데이터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.

* Gradient Tree Boosting : 트리를 이용한 단순한 예측 모델을 계속 합해 정밀한 최종 예측 모델을 만드는 방법

- NIMS Campfire 팀은 제시된 엑셀 파일의 빈 칸을 채워 가야 하는 본선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대부분의 팀과 달리 예선에서 사용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코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략을 택했다.
 - 김소륜 학생은 입상 소감에서 “특히 유효한 데이터 성분 분석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”고 설명하면서, “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운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익히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, 이번 대회를 통해 AI가 만능열쇠인 것만은 아니며, 데이터의 유형이 정해져 있거나 이분법적으로 추려 내야 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한편 「삼성 AI 챌린지 2018」은 삼성전자가 AI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경진 대회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. 대회 시상식은 지난 9월 13일 ‘삼성 AI 포럼’ 중 열렸으며, AI 해커톤 부문과 데이터 챌린지 부문에서 각각 1등 1개 팀에 1,000만 원, 2등 1개 팀에 500만 원, 3등 1개 팀에 300만 원, 특별상 2개 팀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. <끝>

[사진설명]



▲ GIST대학 김소륜 학생(신소재공학전공 3학년), 「삼성 AI 챌린지 2018」 데이터 챌린지 3위 입상